

일본 메구로가조엔건물의 전통성표현기법연구

김은중

(건양대학교 건축학부 전임강사)

1. 서론

1-1 문제의 제기와 연구배경

현대건축에서의 전통성 표현에 대한 접근은 실제 건축물들을 통하여 다양하게 시도가 되고 해석이 되어왔다. 이러한 시도들은 그간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며 사고의 틀과 적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진보를 보여왔다고 판단되는바, 한국에서도 문화시설 및 주거시설들을 중심으로 현대건축에서 전통성을 표현코자 하는 사례들이 상당수에 이르며, 그, 폭과 깊이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당케젠조를 비롯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문화시설이나 청사등의 건축에서 뿐만아니라 대규모 오피스나 복합건축등에 이르기까지 전통성의 표현대상이 확대되어가는 상황이다. 겐조의 동경도청사에서는 대규모 인텔리전트빌딩의 외관 전체를 일본 에도시대의 전통창호문양을 현대적 감각으로 소화하여 세계인의 시선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동경의 신 도심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다.

일본 동경 메구로의 가조엔 빌딩(目黒雅叙園)은 업무 숙박, 그리고 연회장등이 복합된 대규모 복합빌딩으로서 현대와 전통이 접목된 건축물로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본인이 금번에 메구로가조엔 건물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게된 동기는 그간의 한국에서의 전통성

의 표현의 한계가 문화시설이나 주거시설등의 분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한계의 설정의 배경과 그 극복의 방법론을 객관적인 적용사례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중 가장 설득력있는 한 본격적 현대건축중 우리와 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일본에서 그리고 건축요소의 다양한 범주를 종합적이며 합리적으로 한 메구로가조엔 건물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주거나 문화시설이 아닌 대표적인 미래형 건축인 첨단복합시설물에서 전통성을 표현한 사례를 분석 조사함으로써 우리 건축에서 첨단 대형건물에서의 전통성표현에 대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법의 접근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틀과 방법

금번 논문에서는 메구로가조엔 건물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전통성을 현대화하는 기법에 주안점을 주어 분석하였으며 건축형태의 표현, 실내의장의 표현 그리고 외부공간 영역에서의 전통성의 적용사항등에 대한 기술과 더불어 이들 적용사례등에서 추출되는 착안점, 기존 전통성표현사례와의 비교의 틀안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본 건물에 대한 조사는 본인이 97년 7월 현지답사와 및 설계사측과의 인터뷰 및 자료입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2. 가조엔빌딩의 개략과 건축특성

메구로가조엔빌딩은 동경의 메구로구 下目黒의 부지 약 29,801㎡에 기존사업인 호텔 및 연회시설 뿐만아니라 업무용 인텔리전트빌딩과 미술관등을 병행하여 복합시설시설로 전면 개축하여 1991년 11월에 완성하였다. 이 시설의 건축주는 합자회사 雅叙園이며 설계 및 감리는 日建設計, 그리고 시공은 鹿島建設이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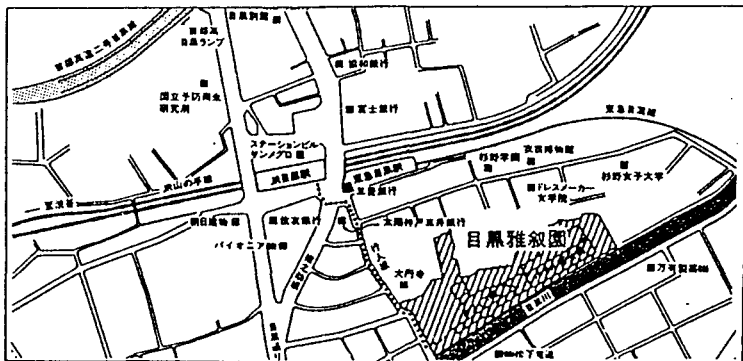


그림 1. 메구로 가조엔빌딩 위치도

이 건물은 고도의 어메니티(amenity)시설과 복합기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서 구관(舊館)의 메구로가조엔은 1931년 요정 및 결혼식장으로 개업하였는데 유명한 예술가로부터의 미술공예품을 수집하여 무척 고상한 실내장식을 통해 동경위 명소로서 알려진 곳이다. 전면개축의 동기는 내적으로는 60년가까이 경과한 건물의 노후화의 문제이며 외부적으로는 동경의 目黒川の 개수공사등 주변의 재개발계획등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JR메구로역 부근에 동경도영지하철 6호선과 영단지하철의 상호 노선이 95년완성을 목전에 두고있어 이것을 중심으로 도시정비계획이 착수되는 상황이라 이 역으로부터 300m정도밖에 안떨어진 이 시설에 업무용시설의 수요의 가능성이 생겨난 배경도 있다. 또한 주변에 샤프로 맥주공장 부지의 재개발계획등 몇 개의 복합빌딩건설계획등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입지의 변화가 호텔,연회장시설의 전면 개축뿐만

아니라 업무용건물의 복합사업개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전체의 배치는 사무소동인 아르코타워는 目黒川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동서는 얇은 형으로 진입부분에 위치하며 인접한 메구로가조엔은 일본정원으로 둘러쌓여 배치되어있다. 주진입부분에 도로에 면하여 광장을 배치하였는데 이 광장은 사무소동에의 인입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인근주택으로 하여금 고

구분	메구로가조엔 (호텔·연회동)	아르코타워 (인텔리전트빌딩동)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일부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상 8층, 지하 2층	지상 19층, 지하 3층
높이	44.7m	99.97m
연면적	35,514㎡	77,170㎡
부대시설	-호텔객실 61실 -결혼식장 3실 -연회장 (입식 3실, 양식 22실) -아트리움 가든 -요정 8실, 자실 1실 -메구로가조엔 미술관 -촬영스튜디오 3실 -레스토랑 3실 -티라운지 1실/122석 -메인 바 1실/31석 -카페 바 1실/104석 -일본정원	-회원제 운동클럽 (아르코 클럽) -수영장/20m×4코스 -트레이닝룸/330㎡ -fitness 스튜디오/66㎡ -골프프리닉 -골프렌지/9타석
설비	-엘리베이터 12기 -에스칼레이터 8기	-엘리베이터 20기 -에스칼레이터 4기
기타	-주차장 470대 수용/연면적 -기존 목조건축물	20,904㎡

표1. 메구로가조엔시설개요

충시설의 압박감을 해소해주기위한 계획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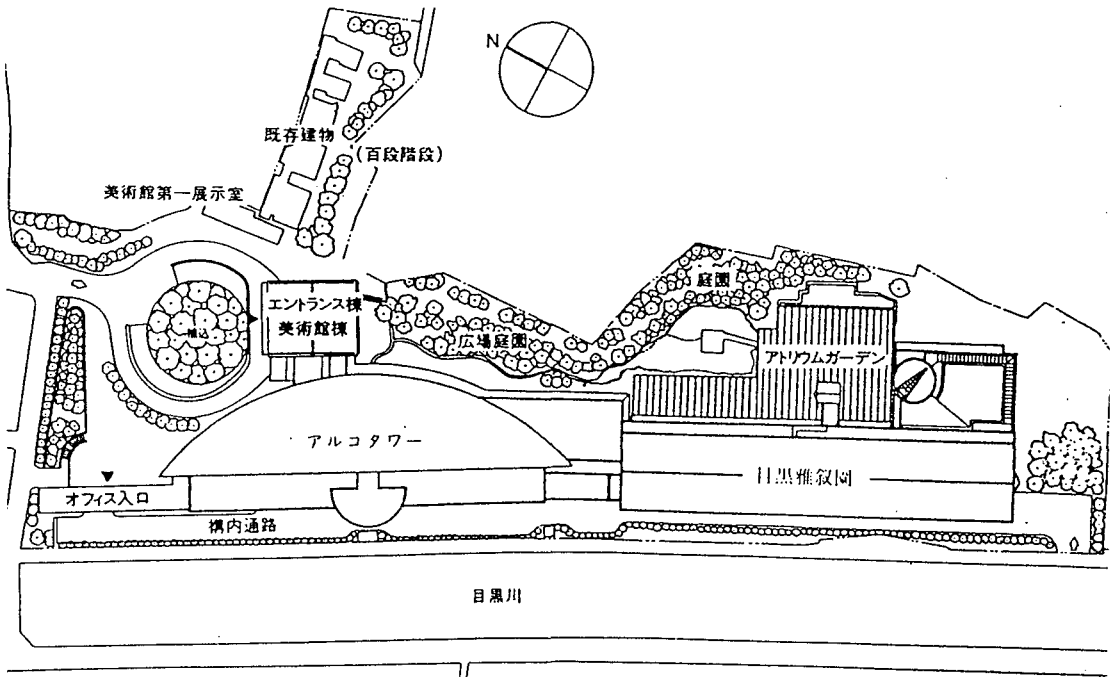


그림 2. 메구로가조엔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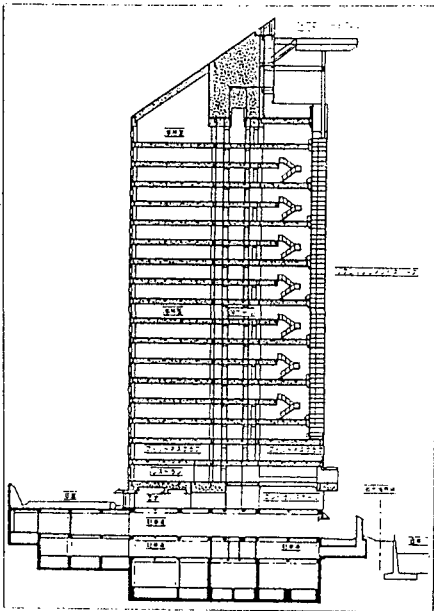


그림 3. 아르코타워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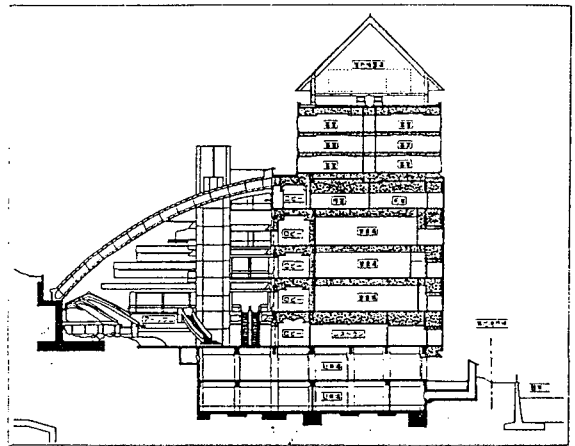


그림 4. 가조엔 단면도

3. 전통성 표현기법의 실제

메구로가조엔빌딩은 일본의 전통미와 최첨단 기술이라는 두영역의 극적인 융화¹⁾라는 주제로 준공과 함께 소개가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단순한 업무 및 호텔의 복합건물로서보다는 전통미를 극적으로 현대화시킨 대표적인 건축물로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시각을 모으고 있는 건물로 알려져 있다. 이 건물에서 도입한 설계기법은 단적으로 현대적 모티브(motive)와 전통적 모티브를 자체의 고유성에 외곡을 두지 않고 극적인 만남을 통해 건물의 관찰자로 하여금 모호한 인식으로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전통과 현대가 서로의 양보나 관용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표현과 조화를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건물에서 연출된 전통미의 영역은 건물형태의 부문, 실내 의장의 부문, 외부공간(일본정원등), 등 여러 영역을 통해 구현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통성의 표현기법을 공간 영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해보고자 한다.

3-1. 건물형태의 표현

상기한 바와같이 본 건물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떠한 갈등의 소지도 없이 그 자체의 고유성을 진실하게 노출하여 표현한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르코타워의 건물외관은 원호형의 현대적인 기하학의 모티브를 이용하였으며 가조엔건물은 객실부문까지의 8층까지는 직사각의 탑형으로 매끄러운 입면을 보여주며 측면의 거대한 아트트리움(atrium)등을 통해 철저하게 현대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두 건물 모두 커튼월(curtain-wall)로 전면을 처리하였으나 동경도청사와 같이 커튼월의 의장 자체는 전통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수평의 띠형태의 중첩의 형태로서 창호와 벽체로 단순한 의장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아르코타워의 측면의 캔틸레버 덱(cantilever deck)도 알루

미늄 및 스틸페널로 현대적 의장과 재료적 채택으로 계획하였다.

전통의 부문은 지붕형태와 담장의 표현에서 나타나는데 메인엔트런스동과 가조엔의 옥탑층이 거대한 맛배지붕으로 그리고 메인엔트런스동 좌측면에 있는 미술관 제일전시실은 팔각지붕으로 계획 되었다. 또한 아르코타워와 가조엔건물의 동쪽 입면부가 일층부분에 부십지붕을 띠모양으로 둘러 일층부의 레스토랑 및 로비등 비영업 또는 비업무용 공용부문에 리렉스(relax)한 입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조엔빌딩과 아르코타워가 일체감있게 연결되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이부분은 전면부에 일본식정원이 계획되어 있어 내부공간에서의 조망뿐만 아니라 외부공간에서의 전통적인 이미지가 조화롭게 표현되고 있다.

건물전면광장의 지하주차장입구와 좌측 미술관 제일전시실에 동선분리용의 가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가벽은 전통담장으로 표현하여 slope를 따라 벽이 단을지어 따라내려오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구조자체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여 현대적 구조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처마부위에는 공포를 두지 않고 메인엔트런스동만 전후면 처마에 서까래형상의 돌음(모울딩, moulding)의장을 두되 slope는 두지 않았으며 수평으로 벽체와 교차되도록 하였다. 기타 다른 건물에서의 서까래처리는 메끈하게 수평으로 처리하였으며 일정간격으로 아주 약한 음각 모울딩을 주었다. 특히 메인엔트런스동의 전후면부 벽체 입면은 장대석 바른층쌓기형식으로 하였으며 지붕의 용마루 양끝의 장식물도 전통적인 지붕장식물의 형상을 두어 이 건물을 통해 건축의장적으로 가장 전통적인 형태를 구사하고 있다.

3-2. 실내의장의 표현

실내의장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표현은 가조엔의 아트트리움 내부의 전통가옥과 실내의장요소 가 될 것이며 아르코타워에서 가조엔빌딩으로의 입구부분에 처리된 의장요소를 들 수 있

1) 일간 건설공업신문 37면, 1991. 11. 7

졌다. 가조엔의 아트리움은 실내정원 형태로 구성되었는데 실내에 연회실이 3단으로 층을 이루며 지붕을 형성하였는데 아래 두단은 초가로, 가장 위의 단은 초가로 지붕전면을 덮고 그 위로 일부를 기와지붕을 덧씌워 특이한 지붕의 변형(innovation)을 보여주고 있다. 초가지붕의 하부에는 일종의 차양구조로 캔틸레버를 형성하여 깊은 처마를 만들어주고 있다. 구조는 전통 목조로 하여 창호 및 각종 의장을 전통의 모티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초가연회실 전면에 일본식 정원을 축소하여 정원수와 연못, 담장의장에 까지 전혀 현대적 감각이 없는 전통적 의장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아트리움부에 1,2, 3층 에스컬레이터가 형성되며 에스컬레이터 교차부를 중심으로 아트리움으로 돌출하여 전망용 복도가 돌출되어 있는데 층층이 기와지붕으로 부설지붕을 두어 캔틸레버를 형성하고 있다. 처마부위는 서까래 형상의 모울딩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처리하였으며 복도의 난간도 스틸부재를 전통적난간의장으로 제작 설치하였다. 아트리움의 측벽면에는 그 배면에 형성되는 연회부문의 벽을 일부 노출시켜 그 상부를 층층이 부설지붕으로 띠를 들렸으며 그 돌출벽면위에는 일본의 전통적 실내의장에 자주 나타나는 이른바 부채를 펼친 문양들로 치장하였다.

다음으로 아르코타워에서 가조엔빌딩으로의 진입부에는 상부를 커다란 기와지붕으로 캔틸레버를 형성하였으며 그 양측으로 내부 수경처리를 하여 일본식 난간으로 둘러 처리하였다.

특히 우측의 수경부분은 외부에 형성된 일본 정원의 대형연못과 연결되어 전면창벽

(all-glassed wall)을 사이로 내외부가 공간적으로 유기적인 만나게 되는 극적인 연출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진입복도의 천장의 곡면을 일본의 전통적 출입문의 처마선을 현대적인

선으로 처리하였다. 진입부 캔틸레버의 상부에는 간접조명으로 기와골이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하였으며 내부 복도의 상부천정에는 루마사이트(또는 창호시트)를 이용한 간접조명으로

하되 루마사이트부분에 각 그리드(grid)마다 민화나 화조도등의 문양을 아로세겨 전통적인 실내의장을 표현하였다. 복도의 측면은 한면은 외부 일본정원과 면하여 전면창으로 처리하였으며 한쪽 측면은 벽면전체에 일본 민화와 목조판(木彫板), 칠예벽화(漆藝壁畫) 또는 섬세한 미술품등 귀중한 전승품들로 채워 현대건축에 재이용하는 수법을 이용하였다. 그 위로 부설지붕을 올려 긴 띠를 형성하여 복도 전체를 두르고 있는데 이 띠는 가조엔의 다트리움 내부까지 연장되고 있다.

또한 엘리베이터홀부분의 바닥에는 카펫에는 전통부채살의 문양을 도입하여 장식하였다.

3-3. 외부공간의 표현

메구로가조엔의 서측전면부는 目黒川이 건물에 인접하여 흐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조건상 외부공간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북측 진입구 부분에 넓은 광장을 설치하여 상기한 바와같이 인근 주택지로 하여금 고층건물로 인한 압박감을 완화시키는 의도로서 평이하게 조정처리를 하였다.

메구로가조엔의 외부공간은 아무래도 메인엔트런스동 후면부터 시작되는 일본식정원의 계획이 가장 크라이맥스한 공간이 될 것이다.

엔트런스동 후문을 들어서면 아르코타워의 남측면을 거쳐 가조엔빌딩으로 이어지는데 부설지붕아래로 인공연못이 길게 이어진다. 그리고 가조엔 건물에 이르기까지 광장정원으로서

잔디와 유도석으로, 그리고 배후면에는 관목과 교목을 적절히 섞어 전체적으로 담백하게

계획되었다. 광장정원을 지나 가조엔빌딩측면으로 접어들면서 전망이 갑자기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가조엔 본체와 아트리움이 직각으로 교차되면서 생긴 넓은 공간을 수경 및 조경적 처리를 통해 일본정원의 단아한 풍경을 조성하였다. 북측 단애에 높고 낮은 폭포를 인공적으로 조성하여 정적인 공간에 활기를 찾게 하였으며 높은 폭포의 단애 안에 조망공간을 두어 단애 안에서 폭포의 추락을 감상할 수 있

도록 계획하였다. 연못에 화강석으로 데크(deck)를 형성하여 그 데크의 중앙으로부터 연목안으로 목조다리를 연장하여 설치하여 물안으로 들어가 수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광장 정원의 담백한 공간으로부터 극적인 조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르코타워와 가조엔으로의 전이 과정에서 일본정원으로의 이동 과정에 잘록한 통로와 교목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시야를 폐쇄한 것이 변화감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4. 메구로가조엔의 전통성표현의 접근 방식 및 착안점

4-1 전통성 접근의 한계의 극복

일본에 있어 전통성의 현대적인 적용의 문제는 1950년대 이후 특히 단게 겐조를 비롯한 대표적 건축가들이 일본의 근대 기능주의 건축사상과 일본의 전통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당게 겐조는 일본건축의 전통과 서구의 근대주의 건축사상으로 건축가로서의 감각을 키워갔으며 기계적 기능주의의 미에 대한 안이한 자동현상(自動現象)은 무엇보다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²⁾ 이러한 50년대이후의 일본 건축가들 사이에서 본격화된 전통 논쟁은 그 결과 수평성을 강조한 콘크리트조의 건축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세계의 건축계에 일본의 새로운 건축의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건축의 발달은 전통건축에 대한 인식이 서구교육을 받은 건축가군에서도 보편화되었으며 이것이 건축인들의 자부심으로 인식되어 건축으로 표현되고 세계의 건축의 일본화와 일본건축의 세계화로 곧 세계적인 건축으로의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³⁾

2) 스즈키 히로유키, 현대 일본의 건축, 윤광진 역, 1984, pp 136-138

3) 이영준, 한국건축 전통성의 현대적 계승과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1. p.23

메구로가조엔건물은 이러한 일본건축에서의 전통의 수용의 세계화의 맥락속에서 이루어진 대표적 사례로서 그간의 아트리에풍의 건축가(단게겐조, 히로시하라등)가 아닌 대표적인 기업형의 설계사인 日建設에서 이루어진 것은 전자의 경우와 그 접근 방식의 차별성을 발견할 수도 있겠다. 일본에 있어서 아트리에 형식의 설계사들은 동경도청사를 비롯한 기념비적인 대표적 대형 건축물을 제외하고 대개 소규모의 문화시설이나 주거시설등을 중심으로 수행이되는 반면 전통성을 주제로한 테마파크라든가 중요한 문화적 맥락을 지닌 단지 또는 도시의 계획등이 이러한 기업형의 전업설계사무실⁴⁾(일건설계, 니혼설계, 마쓰시다, 구메등)등에서 많이 수행되고 있는 바 대형 및 첨단 프로젝트에서의 전통성의 모색이 주로 이러한 사무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가조엔 빌딩은 이러한 일본의 전업설계사무소의 대형프로젝트의 접근방식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그들이 전통적인 주제를 가진 테마파크나 단지등에서 경험한 전통성의 수용의 문제점들과 그 프로세스에 많은 착안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에서의 과거의 전통성의 적용의 한계는 일부 대형 프로젝트를 접할 수 없는 아트리에 형식의 건축설계사의 경험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며 또한 대형설계사에서는 이러한 시도의 발상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로도 파악할 수 있겠다. 특히 미래형 첨단시설이나 대형프로젝트에서 전통성이 표현되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분야의 설계의 기회가 주로 접하여지는 대형설계사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방법론의 모색과

4) 일본의 설계사무소의 유형을 크게 둘로 나누면 건설회사의 배후를 두고 건설 및 설계가 턴키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제네콘(gene-con)설계사(다케나카, 시미즈,가자마, 다이세이, 오오테마찌등)와 순수하게 설계부문만을 담당하여 수행하는 전업설계사무소로 구분이 되며 이중 제네콘은 전형적인 기업형이며 전업설계사무소중에서도 일건설계나 니혼설계, 마쓰시다, 구메등은 전업설계사로서 기업형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2 기존 수용방법과의 비교와 착안점

4-2-1 표현의 범위와 접근방법

가조엔 건물에서의 전통성의 접근 방식은 그 설계기법자체의 의의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이슈는 그동안 전통성의 현대적 표현의 대상이 주로 박물관, 미술관, 청사 등의 문화 및 집회공간 또는 주거시설 등에 머물러 있던 상황에서 첨단 복합빌딩이라는 주제에 적용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당계젠조의 동경도청사나 히로시 하라의 야마또 인터내셔널 등의 대형 오피스건물에서 그 전통성의 단면을 볼 수가 있지만 주로 외형의 은유적 표현⁵⁾에 국한되는 정도였다. 메구로가조엔은 이러한 은유적 표현을 통한 관찰자의 외부에서의 인식에서 그치는 전통성의 도입이 아니라 대형 복합건물에서 전통적인 요소를 건축 내외부에 건축언어로서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즉 건물의 메스에서 현대적 건축언어와 전통적 건축언어를 극적으로 대립시켜 현대적 미학과 전통적 미학이 관찰자로 하여금 동시에 인식되어 지되 은유로 인해 야기되는 인식의 혼돈을 배제시키고 직설적인 표현방식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내외부 공간에 과감한 수법으로 도입된 전통정원의 조성은 면적인 차원의 전통수용에서 공간적인 차용을 통해 동적이며 극적인 전통수용의 차원을 열어 놓았다.

가조엔과 유사한 기법으로 한국의 신라호텔(장충동)의 경우를 비교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본관 저층부 연회동의 상부를 전통양식의 기와를 입혔으며, 측면 연회장 별동을 순수한 전통한옥양식으로 처리한 것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건물에서의 표현의 한계도 외연적인 도입에 그치며 내부공간 또는 외부공간에서의 전통성의 수용의 기법은 전혀 수용되지 않은 점등이 비교된다.

5) 동경도청사의 경우 외부 의장에서 일본 에도시대의 전통적 분위기를 연상케하는 창호요소로 구성하였으며 야마또 인터내셔널 건물에서도 작은 창문의 장식적 문양을 일본 전통주거에서 보는 작은 niwa를 연상케하는 등 은유적 표현으로 구성하였다.

4-2-2 현대적 재료와 회화기법의 수용

메구로가조엔의 전통성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요소는 아무래도 의장재료를 통해 표현된 다양한 전통성의 노출이라 할 수 있다. 아트리움 및 과정적 공간상에 구현된 실내의장들은 일본의 전통 주거에서 볼 수 있는 의장적 수법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현대적 재료와 공간속에서도 전통적인 의장이 별다른 거부감없이 수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상부천장의 루마사이트 간접조명에 시도된 천장화의 도입은 현대적 재료와 전통적 장식방식이 잘 조화가 된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겠다. 아트리움의 측면 돌출벽에 세겨진 부채살문양도 전통주거의 상부 인방에 장식되는 기법을 측면벽의 콘크리트워 수성페인트의 마감에 현대적인 회화적 처리로 여과시킨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실내정원에서의 연회실의 상부 지붕처리는 단순한 전통언어의 차용을 떠나 지붕구조를 초가와 기와의 중첩사용을 통해 회화적인 기법이 다분히 돋보인다고 보겠다.

5. 결론

이상 일본의 메구로가조엔건물을 통해 현대 건축에서의 전통성표현 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향에 대해 조명을 해본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전통수용의 범위의 문제로서 메구로가조엔건물은 그동안 문화시설이나 주거시설 등 중소규모의 전통적인 설계분야에 국한되던 수용의 범위에서 벗어나 대형 첨단시설의 미래적인 건축물에도 적용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기하였다.

둘째. 이러한 초대형 복합건물들은 대부분 소규모 아트리움형의 사무실보다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경험이 많은 대형 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향후 전통성을 주제로한 테마파크나 단지 및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적용을 위해 이러한 사무소에서의 전통성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접근방식들이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메구로가조엔의 전통수용의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직설적인 표현기법으로서 현대적 미학과 전통적인 미학을 보색대비의 형태로 구축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조화성이 돋보이며 은유로 인한 의식의 혼돈을 피해 솔직한 표현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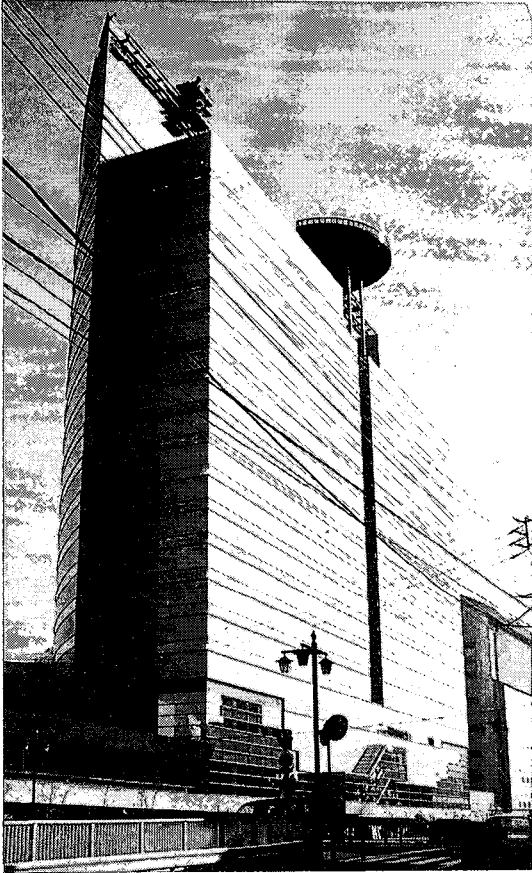
넷째. 현대적 재료와 회화기법의 도입으로 현대의 건축재료로도 전통적인 주제를 흡입력 있게 여과해내며 그 모티브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회화적인 기법등을 통해 미학적 가치를 부여한점등이 좋은 착안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번 논문을 통해 일본의 한 건물에 대한 분석으로 전통성 표현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방식을 논하기에 편협적인 논리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이나 현대건축의 전통성을 폭과 깊이에서 깊은 가능성을 제시해준 대표적 건축물의 실례를 조명함으로써 그 가능성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향후 다양한 사례를 통한 비교론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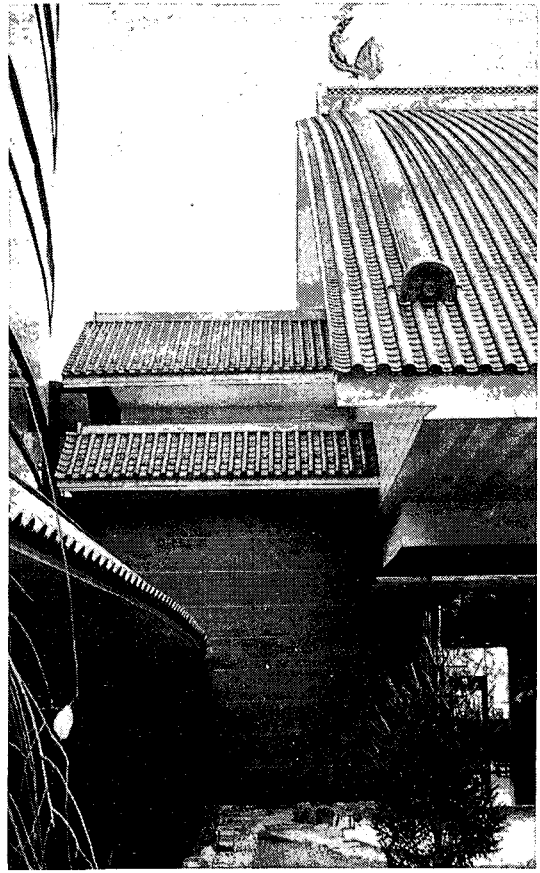
참고문헌

1. 김종헌,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1986.12. 고려대학교 대학원
2. 이영준, 한국건축 전통성의 현대적 계승과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1991.서울대학교 대학원
3. 정덕훈,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건축디자인에 관한 연구, 1986.12,성균관대학교 대학원
4. 김기웅, 한국건축에 있어서 전통성의 현대적 해석에 관한 연구, 1984, 서울대학교 대학원
5. 윤광진, 일본현대건축의 양식분류에 관한 연구, 1986, 연세대학교 대학원
6. 스즈끼 히로유키, 현대일본의 건축, 윤광진역, 1984
7. 建設工業新聞, 일본, 1991. 11. 7
8. Broadbent, Geoffrey., Signs, Symbols and Architecture, N.Y. John Willey & Sons,1980
9. Bonta, Juan Pablo., Architecture and its Interpretation, N.Y.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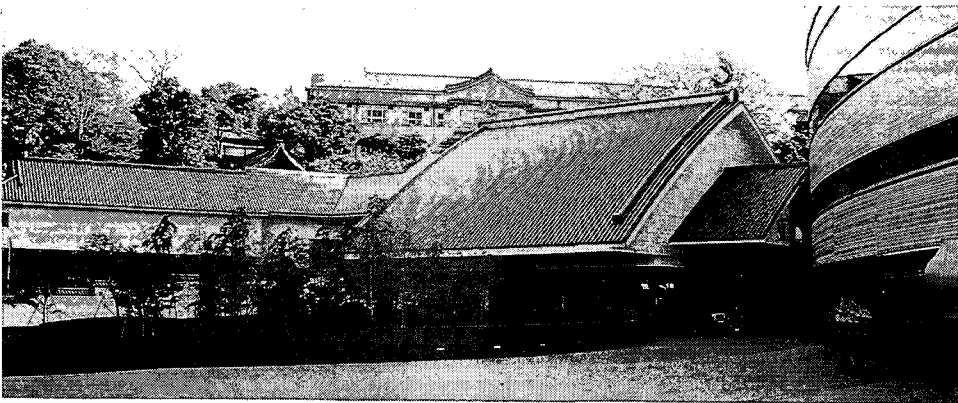
그림 5. 메구로가조엔의 건물 형태의 표현



1) 전 경



2) 메인 엔트런스동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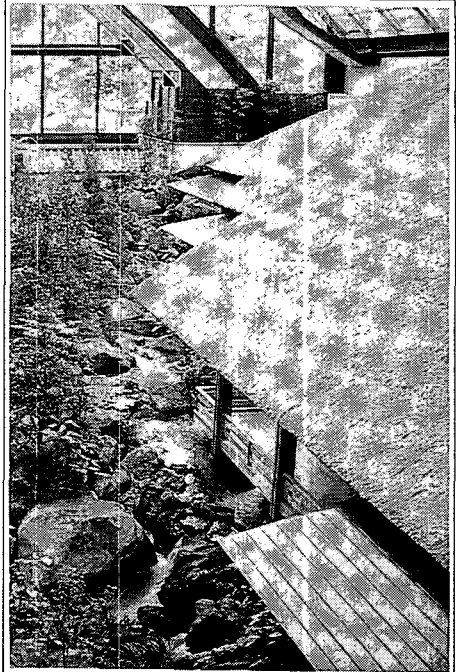


3) 메인 엔트런스동 및 미술관 제일 전시실

그림 6. 실내 의장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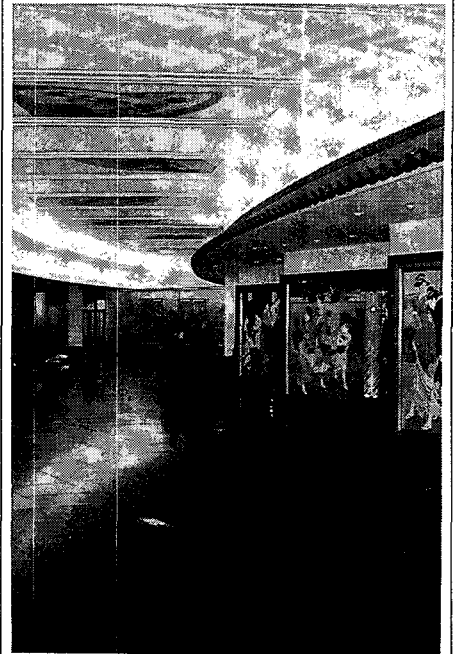
1) 아트리움 측면 돌출벽 문양



2) 아트리움 내부 초가지붕 조형



3) 가조엔 내부진입구 실내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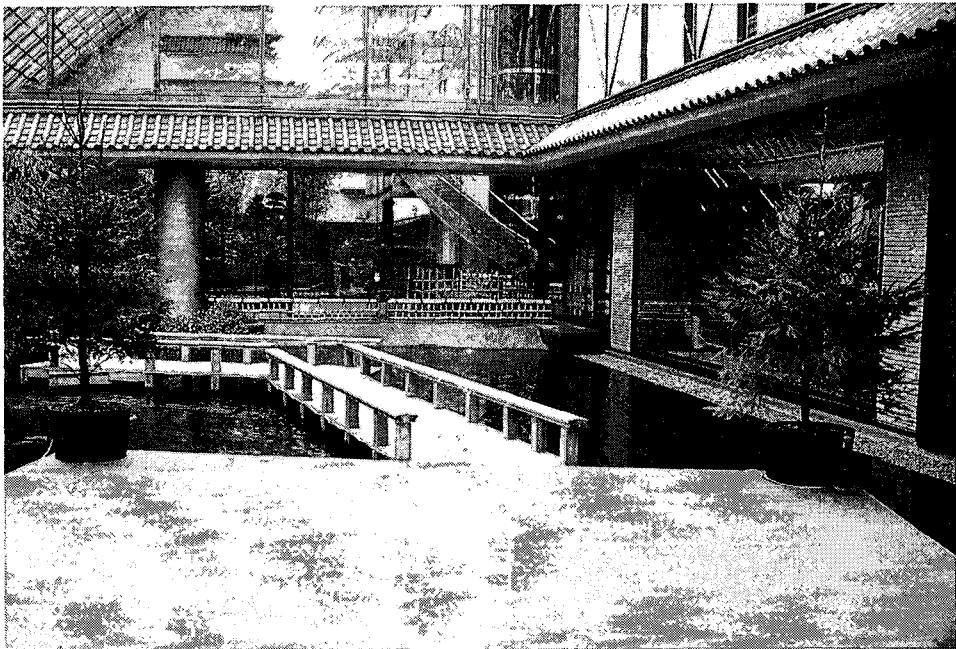


4) 가조엔 진입부 1층 실내

그림 7 외부 전통 일본정원



1) 아르코타워 측면 광장정원



2) 일본정원 데크 및 목조 다리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Method of Traditionality of Mekuro-Kazoem BLDG. in Japan

Kim. Eun Joong
(Instructor, Konyang University)

ABSTRACT

Mekuro-Kazoem BLDG. is a complex of office, hotel, and banquet halls, builded in 1991, Tokyo, Japan. This building suggest us various issues about the representation of traditionality in current architecture. We can find the possibility of representation of traditionality in large complex , in past, rarely applicated. Even in Japan, such trial in official building as New Office Building of Tokyo in Sinzuku shows a application only in the elevation plan. In Mekuro-Kazoem BLDG, the applications of traditionality are found not only in external appearance, but also in interior design. And the traditional Japanese gardens in front of building and in atrium enrich the traditionality. And the modenity and traditionality in this building are represented simultaneously not deteriorating each other.

The issue of representation of traditionality in architecture should be succeed not only in now but also in the future. The method of application need to be studied and improved. The fields of application also should be extended such as large complex buildinds and future-oriented buildings.